

<http://dx.doi.org/10.7236/IIBC.2016.16.1.183>

IIBC 2016-1-25

## 기본심리욕구와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의 구조적 관계 규명

### Ident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주영주\*, 정애경\*\*, 강정진\*\*\*, 이민영\*\*\*\*

Young-Ju Joo\*, Ae-Kyung Chung\*\*, Jeong-Jin Kang\*\*\*, Min-Yeong Lee\*\*\*\*

**요약**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SNS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SNS의 사용이 과해짐에 따라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SN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용자가 SNS를 떠나는 것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이 SNS의 중독 및 지속사용 모두 SNS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를 원인 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acebook 사용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자율성 및 유능성은 Facebook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은 Facebook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NS is developing rapidly along with diffusion of smartphone. However as useage of SNS became excessive, SNS addiction became a social problem. Meanwhile the problem that users leavning SNS because of negative perceptions about SNS became issue. As both SNS addiction and continuance are important when using SNS,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We derive three personal traits, which i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s variables that affect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to use Facebook. The authors'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data, collected from 204 Facebook user, showed that autonomy and competence significantly affected Facebook addiction. Also,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ignificantly affect Facebook continuance.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SNS, facebook, addiction, continuance,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 1. 서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용은 쉽고 간단하게 텍스트,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눈부시게 성장하

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sup>[1]</sup>. 그러나 SNS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SNS 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sup>[2]</sup>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SNS 이용자는 하루 평균 52.4분을 SNS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1%가 자신이 SNS를 과다하게 사용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정회원,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중신회원, 동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과

\*\*\*\*준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6월 18일, 수정완료: 2016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5일

Received: 18 June, 2015 / Revised: 17 January, 2016 /

Accepted: 5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bokj0923@naver.com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전체 사용자의 41.0%는 SNS를 시작한 후 학습이나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SNS 중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전범수, 이정기, 상윤모, 2014)<sup>[3]</sup>.

이와 같이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SNS에 가입한 후,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Exact Target(2011)<sup>[4]</sup>에 따르면 SNS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거나 상업적 메시지의 과도한 등장으로 SNS의 사용을 줄이거나 탈퇴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SN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사용자의 활동 감소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SNS는 사용자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생산자적 소비자의 소통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SNS의 가장 큰 주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박경자, 유일, 김재진, 2013)<sup>[5]</sup>, 지속사용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SNS 중 facebook은 2013년 약 11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1위의 SNS로 급부상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sup>[6]</sup>.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facebook 환경에서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및 관계성(relatedness)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이란 자기결정적인 사람일수록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Deci와 Ryan(2000)은 개인의 본질적인 심리욕구인 유능감, 자율성 및 관계성을 기본적인 욕구로 보고 이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개인의 행복 및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른 매체환경에서는 기본심리욕구와 해당 매체의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게임 환경에서는 Ryan, Rigby와 Przybylski(2006)가 게임 사용자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수준이 낮을수록 게임에 강박적으로 몰두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sup>[8]</sup>. 인터넷 환경에서도 정민선, 김현미와 권현용(2012)의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

성이 충족될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sup>[9]</sup>.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기본욕구충족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Roca와 Gagne(2008)는 이러닝 과정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욕구충족이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sup>[10]</sup>. 매체환경은 아니지만 서문식(2014)은 의료서비스 유경험자 1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높은 고객일수록 관계지속의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sup>[11]</sup>.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facebook 사용환경에서 Deci와 Ryan이 제안한 자기결정성이론의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facebook 중독 완화와 지속사용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이론은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자율성 정도의 차이라고 보며,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동기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Deci, Ryan, 2000)<sup>[7]</sup>. 즉, 자신에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내재동기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동기가 점점 내재화되고 개인과 통합될수록 자기결정적이 되어 간다고 하였다.

자기결정성이론의 하위이론 중 기본심리욕구이론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외재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며, 심리적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세 욕구로 나뉜다(Deci & Ryan, 2000)<sup>[7]</sup>.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주체성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유능성은 스스로 효과적이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느 느낌 및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뜻한다(이명희, 김아영, 2008)<sup>[13]</sup>.

### 가. facebook중독과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

Facebook중독은 facebook을 과다사용하여 facebook

사용에 대한 금단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뜻한다. Seay와 Kraut(2007)는 인간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상공간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개인이 가상공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성이 과도해지면 중독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중독은 대체적으로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와 중독 간의 관계검증은 게임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Ryan, Rigby와 Przybylski(2006)은 사람들은 비디오게임을 통해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심리욕구가 덜 충족된다면, 게임을 통해서 이를 충족시키려하므로 게임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중독에 기본심리욕구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인터넷 환경에서 남고생 382명을 대상으로 한 정민선, 김현미와 권현용(2012)의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sup>[10]</sup>.

#### 나. 지속사용의도와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

Facebook 지속사용의도는 사용자가 facebook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뜻한다. Bhattacharjee(2001)는 정보시스템의 실질적인 성공은 사용자의 최초수용보다는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sup>. 그동안 포괄적인 정보기술의 수용이나 재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SNS의 재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며(이홍재, 최문형, 박미경, 2012)<sup>[16]</sup>, facebook의 재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더욱 간과되어 왔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닝 유행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Roca와 Gagne(2008)의 연구는 기본심리욕구가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사용자의 이러닝 지속사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sup>[11]</sup>. 또 교사 124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이러닝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한 Sorebø, Halvari, Gulli 및 Kristiansen(2009)의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지각된 유용성 및 내

적동기를 매개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sup>[17]</sup>. 나아가 Calvo, Cervello, Jimenez, Iglesias와 Murcia(2010)가 청소년 축구선수 4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율성 및 관계성의 충족이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sup>[18]</sup>. 유능성의 경우, 이들의 연구대상이 모두 숙련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유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내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지속의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김계주와 김덕진(2011)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체육 교수행동, 심리욕구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도와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관계성 및 유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sup>[19]</sup>. 자율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서술하지 않았다. 김준과 이근모(2012)가 여가스포츠 참가자 7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율성이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유능성 및 관계성은 운동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여가제약 협상 및 진지한 여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쳤다<sup>[20]</sup>.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은 facebook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이론을 근거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설문지 링크를 연구자의 facebook에 게시하여 facebook 이용자를 편의표집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웹 서버이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223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0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04명 중 성별은 남성이 56.4%(115명), 여성이 43.6%(89명)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10대 2.9%, 20대 93.6%, 30대 2.9%, 40대 0.6%로

20대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facebook 중독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측정도구를 facebook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각의 도구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리된 측정도구 문항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을 위해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참고함과 동시에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회전을 실행하였다. 문항 선별은 요인행렬 계수가 .30 이상인 것을 선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문항인 관계성 2번 문항(내 facebook 친구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은 삭제하였다.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은 6문항씩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전체 Cronbach's  $\alpha$ 는 .87이다. 자율성(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70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1다. 유능성(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75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2다. 관계성은 5문항(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을 사용하였으며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79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6이다.

Facebook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Andreassen, Torsheim, Brunborg와 Pallesen이 개발한 도구(2012)를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예: 나는 최근 facebook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Cronbach's  $\alpha$ 는 .83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0이다<sup>[21]</sup>.

Facebook 지속사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Talyor와 Todd의 도구(1995) 중 3문항(예: 나는 facebook을 자주 사용할 의사가 있다)을 사용하였으며 원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1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6이다<sup>[22]</sup>.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단요인으로 나타나 묶음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를 측정하였다. 적합도 검증에는  $\chi^2$ , TLI, C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유의성은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 IV. 실험 및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다변량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0),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에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sup>[23]</sup>.

Facebook 사용자들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facebook 중독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측정한 결과,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 $n = 204$ )

측정 변인	측정 변인의 상호 상관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 자율성1	1									
2. 자율성2	.7*	1								
3. 유능성1	.2*	.1	1							
4. 유능성2	.3*	.2*	.7*	1						
5. 관계성1	.2*	.1	.5*	.5*	1					

6. 관계성2	.2*	.2*	.3*	.5*	.6*	1				
7. 중독1	-.2*	-.2*	.3*	.4*	.3*	.3*	1			
8. 중독2	-.6*	-.2*	.4*	.3*	.4*	.3*	.7*	1		
9. 지속사용 의도1	.4*	.3*	.5*	.7*	.5*	.5*	.4*	.3*	1	
10. 지속사용 의도2	.3*	.2*	.4*	.5*	.5*	.4*	.4*	.3*	.8*	1
평균	3.6	3.6	2.6	2.6	3.0	2.9	2.3	2.3	3.1	3.0
표준편차	.77	.73	.78	.70	.65	.66	.81	.80	.84	.96
예도	-.22	-.16	-.11	-.07	-.14	-.06	.06	.00	-.52	-.35
첨도	-.70	-.35	-.31	-.24	.34	.06	-.80	-.84	.09	-.17

\* p < .05

###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TLI, CFI 지수가 .90 이상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측정모형의 RMSEA가 .06로 나타내는 등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이 양호한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이 .50이상일 때 수렴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이 .80이하일 때 변별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문수백, 2009)<sup>[24]</sup>.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73~.94에 걸쳐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절대값 .22 ~ .74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수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부합도 기준이 충족되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했다.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 = .95, CFI = .97, RMSEA = .08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facebook 중독, 그리고 지속사용의도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facebook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자율성은  $\beta = -.45(t = -5.441, p < .05)$ , 유능성은  $\beta = .54(t = 3.680, p < .05)$ 의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성은  $\beta = .17(t = 1.279, p > .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자율성은  $\beta = .15(t = 2.453, p < .05)$ , 유능성은  $\beta = .52(t = 4.331, p < .05)$ , 그리고 관계성은  $\beta = .27(t = 2.430, p < .05)$ 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해도 모형의 부합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임을 가정하고 초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관계성 → facebook 중독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초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위계적 모형을 이루고 있어 초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 1.809, p = .18$ 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초기구조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2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Table 2. Fit indices for alternative models

(n = 204)

	$\chi^2$	P	df	TLI	CFI	RMSEA
수정모형	57.8	.00	27	.95	.97	.08 (.05 ~ .10)
구조모형	56.7	.00	26	.95	.97	.08 (.05 ~ .10)
기준값				> .90	> .90	< .08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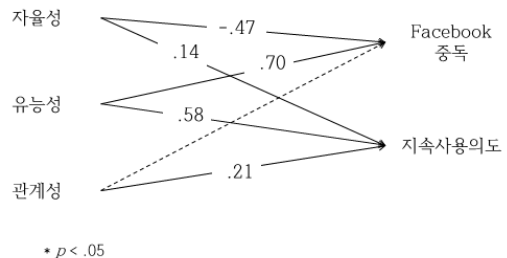


그림 1.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Fig. 1. Results of the alternative model

수정모형에서의 경로계수는 자율성은  $\beta = -.47(t = -5.441, p < .05)$ , 유능성은  $\beta = .70(t = 3.680, p < .05)$ 의

로 자율성과 유능성은 facebook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자율성은  $\beta = .14$  ( $t = 2.453, p < .05$ ), 유능성은  $\beta = .58$  ( $t = 4.331, p < .05$ ), 그리고 관계성은  $\beta = .21$  ( $t = 2.430, p < .05$ )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은 facebook 중독에 정적 영향을, 유능성은 facebook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은 지속사용의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나, facebook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유능성이 facebook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관계성이 facebook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 모두 기존의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율성은 facebook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facebook을 사용할 때 타인에 의해 통제 받는다고 느끼는 사용자일수록 facebook에 중독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facebook 인터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는 facebook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능성은 facebook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인 facebook에 대한 유능성이 높을수록 facebook 중독이 향상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유능성을 향상시킨다면 사용자가 facebook에 과하게 몰입하지 않고 오프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facebook 중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통제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모임과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를 유도한다면, SNS가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유능성이 증진됨으

로써 facebook 중독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관계성이 facebook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의 세 요소 중 관계성이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인 기존의 실증연구(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김준, 이근모, 201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sup>[21][25]</sup>. 유지원과 강명희(2011)는 이와 같이 관계성이 낮은 영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 맥락에 따라 관계성 변인을 제외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관계성은 협력 학습과 같은 대인관계적 학습활동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26]</sup>. 본 연구 환경인 facebook은 대인관계적 학습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지속사용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facebook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표현하기 쉽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익명 댓글기능을 도입한다면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facebook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처음 facebook을 시작할 때 이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facebook에 대한 유능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facebook 내에서 개인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룹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으로써 facebook을 통해 사회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이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조절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성비 및 연령이 남성 및 20대에 편중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성비 및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과 같은 동기요인 뿐만 아니라, facebook과 같은 매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acebook을 학습매체 및 협동학습도구로 사용할 때, 기본심리욕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facebook을 사용하는 것과 학습에 facebook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References

- [1]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3 Korea Internet Paper, 2013.
- [2] Kore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Internet Addiction Research, 2012.
- [3] B. Chon and J. Lee and Y. Sang, "Facebook Addiction among Koreans: A Look at Communication-related Variables", Korea Speech and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 23, pp. 243-272, April 2014.
- [4] Exact Target, The Social Break-UP, www.ExactTarget.com. 2011.
- [5] Y. Park and I. Ryu and J. Kim, "A Study on Continued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s SNS Literacy ",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 vol. 22, no. 1, pp. 65-86, March 2013.
- [6]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urrent State of Social Media Service and Application: Emphasis on Socail Network Service, 2013.
- [7] E. Deci and R.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 11, no. 4, pp. 227-268, November 2000.
- [8] R. Ryan and E.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68, January 2000.
- [9] R. Ryan and C. Rigby and A. Przybylski, "The motivational pull of video ga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 vol. 30, no. 4, pp. 344-360, November 2006.
- [10] M. Jung and H. Kim and H. Kw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on the Association of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vol. 20, no. 1, pp. 159-174, June 2012.
- [11] J. Roca and M. Gagne, "Understanding e-learning continuance intention in the workpla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4, no. 4, pp. 1585-1604, July 2008.
- [12] M. Seo,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lationship Retention in Medical Service",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33, no. 3, pp. 35-57, September 2014.
- [13] M. Lee and A. Kim,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2, no. 4, pp. 157-174, November 2008.
- [14] A. Seay and R. Kraut, "Project massive: Self-regulation and problematic use of online gaming",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829-838, 2007.
- [15] A. Bhattacharjee,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pp. 351-370, September 2001.
- [16] H. Lee and M. Choi and M. Park,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User's Cognitive Factors on Reuse Intention of SN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 28, no. 3, pp. 145-167, September 2012.
- [17] Ø. Sørebo and H. Halvari and V. Gulli and R. Kristiansen, "The rol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xplaining teachers' motivation to continue to use e-learning technology", Computers & Education, vol. 53, no. 4, pp. 1177-1187, June 2009.

- 2009.
- [18] T. Calvo and E. Cervello and R. Jimenez and D. Iglesias and J. Murcia,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xplain sport persistence and dropout in adolescent athlete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3, no. 02, pp. 677-684, January 2010.
- [19] K. Kim and D.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Perceived Teaching Behavior,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n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16, no. 3, pp. 77-92, October 2011.
- [20] J. Kim and K.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Serious Leisure, and Exercise Adherence of the Participants in Leisure",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25, no. 2, pp. 85-107, June 2012.
- [21] C. Andreassen and T. Torsheim and G. Brunborg and S. Pallesen,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1, 2", Psychological reports, vol. 110, no. 2, pp. 501-517, February 2012.
- [22] S. Talyor and P. Todd, "Assessing IT usage: The role of prior experience", MIS Quarterly, vol. 19, no. 2, pp. 561-570, December 1995.
- [23] R.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0.
- [24] S. Moo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Hakjisa, 2009.
- [25] J. Kim and E. Kim and S. Ho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roeia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0, no. 1, pp. 243-264, March 2006.
- [26] J. Yoo and M. K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need factor,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ing engagement",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 49, no. 4, pp. 55-85, November 2011.
- [27] A. Kim, Academic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Hakjisa, 2010.
- [28] M. Kim and W. Woo, "Function Analysis for SNS and Shopping Mall Integrati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5, no. 2, pp. 239-244, April 2014.

## 저자 소개

### 주 영 주(정회원)



- 1992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 2003 ~ 2008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영학 전공) 취득
- <주관심분야 : 교육정보화, e-러닝, 성과관리>

### 정 애 경(정회원)



- 2008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교수설계 전공)취득
- 2001 ~ 2014년 :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미디어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원격평생교육원 부원장)
- <주관심분야 : 교육정보화, e-러닝, 모바일학습>

### 강 정 진(중신회원)



- 1991년 3월 ~ 현재 : 동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 2007년 2월 ~ 2010년 2월 : 미시간주립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교환교수
- 1991년 8월 ~ 2005년 8월 : 건국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외래교수(대학원 및 학부, 강의 및 논문지도)
- 2012년 : 한세대학교 4차원영성 최고위과정
- 2011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고위과정
- 1997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초빙연구원
- 1989년 :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 1984년 ~ 1985년 : 삼성반도체통신(주) 연구소
  - 1982년 ~ 1984년 : 육군통신장교(ROTC)
  - 2011년 ~ 현재 :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인명록 등재
- <주관심분야 : Smart & Cloud Convergence, RFID/USN, Smart device, Mobile Communication & Computing, Antenna & Electromagnetic Wave, Smart Security & Intelligent Control>

#### 이 민 영(준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45331).